



품질보증스티커 공급 개시

— 소비자 신뢰 향상, 불법녹용막는 파수꾼 역할 기대 —

녹용케이스 및 녹증탕 등 각종 양록산물에 부착, 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스티커 공급이 시작됐다.

본회는 녹용케이스 및 증탕 박스 등에 부착,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사)한국양록협회가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스티커를 5월말부터 전국 회원농가에 공급키 시작했다.

품질보증스티커는 가로 3cm, 세로 4.8cm 크기에 산뜻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녹용케이스 등에 부착할 경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품에 대한 대소비자 신뢰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각 품질보증스티커는 서로다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어 위변조 방지는 물론, 몇 차례의 유통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외산녹용의 국내산 둔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회 관계자는 “각 개별 회원 농장의 녹용생산량만큼만 스티커가 공급되기 때문에 외산녹용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말하고 “본회 회원 농장은 생산된 양록산물에 예외없이 스티커를 부착, 불법 외산녹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본회는 금번 제작된 품질보증스티커가 ‘(사)한국양록협회가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만큼 비회원농가에게는 공급치 않고 본회 회원농가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다. 품질보증스티커 가격은 개당 2백원이다.

한편 본회는 품질보증스티커 공급을 알리는 공문을 전국 지회장 및 사무장에게 발송하고 회원농가의 녹용생산량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양록**

